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세주 하나님을 키우는 데 육천 년이 걸려

5면에 이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사람 하나를 키우는 데 육천 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피를 다듬고 또 다듬고 다듬어서 육천 년 만에 완성이 되고로 하나님 당신이 완성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나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봐도 내 주님이요, 저 사람을 봐도 내 주님이요, 누구를 봐도, 어떤 사람을 봐도 내 주님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죄가 욕심이요, 욕심 자체가 '나'라고 하는 의식이요, 죄가 마귀요 선악과인고로 '나라는 의식 자체가 마귀라고 시간 시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나라는 자 존심이 움직일 때는 그대로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나라는 것을 죽이는 생활을 해야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되어야,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났다'가 되어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가 되어야 구원이 되는 것이지, '나라는 의식이 그대로 살아가는 구원과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 시간 초초로 사모하게 되면 그 마음을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어

'나라는 것을 죽이는 비결은 내 주님을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고, 나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요, 나라'는 것을 생각하려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을 의식할 수 없는고로 '나라는 것이 다시 살 수 없는고로 나를 죽였다'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는 비결을 어떻게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이긴 영인 까닭입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자기를 이겨보기 전에는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기는 비결은 '나라는 것을 짓이기는 비결도 있고 온전히 맡기는 비결, 초초로 사모하는 비결도 있습니다. 초초로 바라보는 비결, 온전히 이끄심을 받는 비결도 있고 주장함을 받는 비결도 있습니다. 나를 이기는 비결은 형제를 내 주님처럼, 내 하나님처럼 여기는 비결도 있습니다. 형제 죄를 내 죄로 여기고, 형제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기는 비결도 있습니다.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비결도 있는 것입니다. 고도로 바라보고 사모하는 층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는 이긴자가 없었던고로 숯덩어리(인류 전체)에 구원의 불이 붙을 수가 없었다

것이 나를 이기는 비결이요 완성이자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나를 이기는 비결,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을 가르쳐주면 이것이면 다인 것입니다. 다른 설교가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것만 죽이면 나만 구원이 아니요, 내 주위까지 구원이요, 내 주위의 모든 만물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만 변하는 것이 아니요, 만물까지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진액을 딱 끊고 변화가 되면 이 사람 하나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도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제단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자들이 이를 갈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열흘만 통곡하는 것이 아니요 영원무궁토록 통곡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영광이요, 엄청난 빛이요, 영화인고로 그 영화를 누리는 것만 보아도 통곡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불구덩이에서 펄펄 뛰지 않아도 승리제단 식구들이 영화를 누리는 걸 보면, 내가 왜 끝까지 나가지 못하고 요모양 요몰이 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기가 막힌 영화인고로 그걸 보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요구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명령대로 움직여야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긴자가 없었던고로 숯덩어리에 불이 붙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덩어리가 있는 곳에 가까이 제단에 나와 앉아 있기만 하면 불이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만 살면 '나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내 주님만 의식하는 생활로 일관하게 되면 그대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움직여주면 세계는 순식간에 열어지는 것입니다. 불과 21일만 지켜준다 해도 세계는 그대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시간 시간 '나라는 것을 짓이기는 생활을 하기만 하면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처음에 오면 '나라는 것은 버스에 갈려서 죽은 길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건 이미 죽었고 가족도 전혀 의식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시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계속해서 사모하는 생활을

해야 그 사모하는 도수가 1단계를 지나 2단계 3단계로 들어가서 이긴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하나님이었던고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 불효자인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모하는 사람의 음성은 다릅니다. 음성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찬송할 때마다 여유 있는 음성이 아니요,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는, 극에 달한 음성인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음성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극에 달한고로 마귀가 거기까지 못 쫓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그 마음이 간절한 심정, 고도로 사모하는 심정을 가진 자 그 음성이 다른 것입니다. 고도로 사모하는 자 그 음성이 극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심정이 항상 몸에 붙어 있는고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고로 높은 음성인 것입니다.*

1988년 1월 10일 말씀

인간의 본향으로의 회귀를 도모하다

인간은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간에 어떤 순간이 되면 '나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나는 누구인가 하고 깊은 고민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왜일까? 과연 인간에게 과거 어떠한 일이 벌어졌고, 지금의 인간은 어떠한 상태로 되어 있기에 본능적으로 인간존재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것일까?

여기에 납득할 만한 답을 하려면 한 권의 책으로 써도 부족할지 모른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다르다. 모르는 것을 설명하려니 복잡하고 장황한 설명이 필요하지 아는 사람은 간단명료하게 그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 피의 원리는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논리로 인간존재의 비밀뿐만 아니라 우주와 만물의 기원까지도 확정해서 완전무결한 설명이 가능하다. 그 신비하고 놀라운 진리의 실체를 논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인자를 받아 어머니 뱃속에서 열 달 동안 어머니

의 피를 공급받아 만들어졌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다. 나는 신장, 골격구조, 머리카락과 눈의 색깔, 목소리의 어조, 행동방식 등 신체적 정신적 특질을 부모로부터 유전받았다. 나는 부모의 유전물질로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피의 유전에 의해 조상들의 육체와 정신의 단편을 이어받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보들이 현재의 나의 핏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들의 최초 조상은 누구인가

그렇게 인간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 최초의 조상이 나올 것이다. 그 최초의 조상은 과연 어떠한 존재였을까? 인간 존재의 비밀의 흔적은 다른 데서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확실한 것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양식의 전반을 분석해보면 그 단서를 의외로 뚜렷하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인간은 태어나서 어김없이 죽지만, 인간의 의식자변에는 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가? 인간은 육체라는 제약된 몸을 가지고 있지만, 끊임없이 자유롭고 무한한 속도감을 즐기고 싶어 할까? 인간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악하고 추한 것을 싫어하는 것일까? 또한 인간은 허술하고 불안정한 것을 어떻게든 완벽하고 온전하게 하려는 의지와 열정의 저변의식은 무슨 작용일까?

승리제단은 바로 이것이 인간의 본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증거한다.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우리가 숭배하고 절대시했던 그 신(하나님,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바로 우리 인간 자신의 시원(始原)의 모습을 느낌과 기억으로 문자화하고 형상화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것이 곧 종교가 되고 학문의 발단이 된 배경인 것이다. 인류 최초의 조상은 인간이 그토록 간절히 염원하던 '천국의 이상향'에서 영원무궁토록 살았던 존재였다. 오직 선(善)만을 알고 있었으며, 완전 자유와 기쁨과 행복 속에서

시공을 초월하여 영원을 누리고 살았던 것이다. 모든 나라와 종교의 경전에는 하나같이 신(神)의 상태를 이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인간의 본성을 그려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바로 우리 인간의 시원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진정 인간치고 영원히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 존재가 있을까?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허무로 던져 넣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사실 인간만이 자신이 언제가 한 번은 꼭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삶의 과정에서 자신이 언제가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인간만큼 잊고 사는 존재는 없다. 인간은 숨이 넘어갈 듯 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인간은 마치 과거에 영원히 살았던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미래를 그렇게 알고자 하지만 자신이 죽는 시간만은 알기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같은 인간의 살고자 하는 의지는 동서고

금을 통해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고대 서사시의 일종인 수메르에 나오는 길가메시라는 영웅이 불사(不死)를 추구했던 이야기, 삼천갑자 동방삭 이야기, 진시황의 불로초 이야기, 현대의 '냉동인간'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왜 이렇듯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기를 싫어하는 것일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원래 인간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았던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사과를 먹어본 사람이 그 사과 맛을 기억해내 듯, 천국과 하나님의 상태를 경험한 피가 우리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피'의 유전! 바로 인류 최초의 조상이 경험했던 행복과 영생의 본능 그리고, 하나의 관념이 인간의 핏속으로 끊임없이 유전되어 왔던 것이다.

고대의 저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은 이 데아(Idea)라는 이상향에서 살았었는데, 그 인간이 '망각'의 강을 건너면서 이상향을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하였다. 유구한 세월이 흐른 지금 인간의 본성을 인류 최초로 회복한 존재가 나타나 인간의 본향으로의 회귀를 도모하고 있다.*

전세계에 알리는 진짜 경전 이야기 47회

전 세계여! 모두 깨어나자!

〈사람은 하나님이었다 4탄〉

2.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었다는 증거

2-2. 사람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영생과 행복과 자유와 날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

1. 인간에게는 생각의 범주가 있어서 자신이 경험했던 범주 내에서만 생각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2. 그래서 그 범주를 벗어나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의 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다.

3.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생각 범주 안에 '죽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희락과 기쁨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마음'도 있으며, 심지어는 '몸이 날아다니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다.

4. 이것은 다름 아니요, '죽지 않는 세계', '희락과 기쁨이 충만한 세계', '몸이 날아다니던 세계에서 살아보았던 경험'이 있는 피가 인간의 몸에서 흐르고 있는고로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5. 이러한 피가 그러한 세계를 그리워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세계를 동경하는 마음 작용이 되는 것이다.

6. 그런고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속에서 바로 그러한 희열의 세계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숨어 있는 것이다.

7.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었다.

8. 지금도 여러분의 몸속에는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

9. 하나님이 계속해서 육천년 간을 살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각자각자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10.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승계하고 있는 것이다.

11.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분신으로 쪼개져 오늘날의 세계 인류가 되었다.

12. 각기 여러 나라 여러 인종으로 쪼개져 살고 있지만, 역시 하나님 한 분이 살고 있는 것이지 각자각자가 따로 동떨어진 개체로서 사는 것이 아니다.

Real Scripture Stories to Tell the World-Episode 47

All over the world! Let All Wake Up!

〈Humans are God. - Part4〉

2. The evidence that humans are God.

2-2. Because humans were God, they have desires of immortality, happiness, freedom, and flying.

1. As humans have the sphere of thinking, they only move in the sphere of their experiences.

2. So, they can not even think beyond their sphere of experience.

3. But there is a mind of hating death, a mind of living in rapture and happiness, even a flying mind.

4. This is the evidence that there is blood in humans, that people experienced an immortal world which was full of happiness, joy and flying. Therefore, such minds occur and are rising by intuition.

5. Because the mind is longing for that world, such blood misses that world.

6. Therefore, there is a hidden possibility, in humans' intuitive longing, that humans will return to the world of rapture.

7. People were originally God.

8. Now, the blood of God is flowing in your bodies.

9. God has lived for 6,000 years; none of you have lived for 6,000 years.

10. You are the successor to the life of God.

11. For 6,000 years God has, until now, been split into His other self.

12. Even though God is split into each country, each race, one God has lived, so none of you live separately.*

by Hana